



“9색 보컬+칼군무…음악방송 1위 할 수 있겠죠?”



“1위 더 간절해져요!” 걸그룹 구구단의 올해 목표는 음악방송 1위다. 실력, 외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들이기에 목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 젤리퍼쉬 엔터테인먼트

두번째 싱글 ‘엑트, 4 캐트 시’로 돌아온 구구단

이번엔 동화 ‘장화 신은 고양이’ 콘셉트 팬들 열광 깜짝…걸크러시 매력 통했죠

확 달라졌다.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걸그룹의 정형화한 이미지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싶더니 이번엔 실력이나 외모,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9인조 걸그룹 구구단(하나·미미·나영·해빈·세정·소이·샬리·미나·혜연)은 최근 발표한 두 번째 싱글 ‘엑트, 4 캐트 시’(Act. 4 Cait Sith)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극단’이라는 그룹 콘셉트에 맞춰 데뷔 때부터 동화 ‘인어공주’, 명작 ‘나르시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을 자신들에 맞게 재해석해왔다. 이번엔 ‘극단돌’의 연장선에서 프랑스 동화 ‘장화 신은 고양이’를 선택했다.

타이틀곡 ‘더 부츠’는 동화 속 당당하고 주체적인 고양이의 모습을 모티브 삼아 “구구단이(고양이처럼) 대중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화 신은 고양이’의 신비한 매력은 도입부를 장식하는 휘파람 소리와 멤버별 ‘걸크러시’ 모습으로 강조했다.

아이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예전과 다르게 이들에게 쏠린 관심이 유난히 뜨겁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는 “구구단이 달라졌다”는 글이 잇따른다.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무대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각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사전녹화 때 팬들의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라 우리도 많이 놀랐다. 그동안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더니 걸크러시 매력을 더 좋아해주시는 것 같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한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다.”(세정·혜연)

적어도 두 가지는 이번 음반을 통해 확실히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 뛰어난 보컬 실력과 칼군무다. 이들은 비교적 과감한 춤을 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음반 발표 전 티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아가펠라 버전도 이들의 가창력을 돋보이게 한다.

“지금까지 선보인 노래로는 가창력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다. 예전부터 ‘고막 여친’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홉 멤버의 보컬 색이 다 다르다. 메인보컬뿐만 아니라 서브보컬들까지 완벽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다. 팀 내에서 춤으로는 ‘원톱’으로 꼽히는 막내 혜연 뿐만 아니라 ‘댄스 라인’을 이루는 다른 멤버들도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오차 없는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싶다.”(하나·미미)

이들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 실력이나 매력으로 따지자면 부족함이 없는데 성적은 아쉬움을 남기기 때문이다. 활동한 날짜만 쏘아보면 채 1년도 안되지만 이들은 올해 데뷔 3년차를 맞았다. 예전과 비교해 그룹 인지도는 높아졌어도 이들의 목표인 “음악방송 1위”는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쉽지 않다.

“최고 성적이 2위였다. 그전까지 연차도 안되고 음반도 자주 발표하지 않아서 우리 입 밖으로 ‘1위’라는 얘기는 한번도 꺼내지 않았다. 준비를 많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간절해지더라.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나, 이번에는 구구단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면 올해는 꼭 1위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해빈·나영)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숫자뉴스

59세 올해 가을 결혼하는 ‘새 신부’ 김연자의 나이다. 김연자는 1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던 분으로 고향이 같다. 서로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면서 가을 결혼을 예고했다.

#해시태그 킷



전소미, 히딩크 전 감독과 찰카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전소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한 경기장에서 우연히 히딩크 전 감독과 만났다. 전소미는 “부럽지?”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팬들은 2001년 생인 전소미가 히딩크 감독을 아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히딩크 감독은 전소미가 두 살 때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전소미 #히딩크 #평창올림픽 #부럽지? #이만남 실현?

연예뉴스 HOT3

김미화, 평창 개막식 논란 사과

방송인 김미화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했다. 김미화는 9일 MBC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생중계에 진행자로 나서 다소 뜬금없는 발언 등으로 일부 시청자들의 비난을 샀다. 김미화는 11일 오전 SNS를 통해 “일배들의 악의적인 밤샘 조리돌림으로 일부 비난이 ‘여론’이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것조차 제 불찰이다”면서 “올림픽 중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김미화가 ‘일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냐’ 지적하자 김미화는 “생각이 짧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정석원, 필로폰 복용 혐의로 입건

배우 정석원이 필로폰 흡입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정석원은 이달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등과 함께 필로폰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원은 호주에서 입국하던 8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정석원이 단순투약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9일 석방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정석원의 향후 활동은 불투명해졌다.

엑소 등 타임 선정 케이팝 그룹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레드벨벳 아이콘 세븐틴 등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케이팝 대표 그룹으로 뽑혔다. 타임은 11일 케이팝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소개하며 “당신이 알아야 할 케이팝 그룹으로 이들을 소개했다. 타임은 이들 아이돌 그룹 각각에 대해 “댄스 기술이 현란하다”, “패션이 아름답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독창적인 음악을 한다” 등으로 찬사를 보내며 각 그룹별 대표곡 뮤직비디오도 함께 소개했다.

촬영 재개한 ‘리턴’ 박진희 합류할까?

고현정 논란 하차…박진희 출연 고민 중



박진희

청자들의 반발도 있어 ‘리턴’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제작진은 고현정 하차가 결정되자마자 빠르게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최경미 작가는 대본 수정에 돌입했고, 완성한 수정본을 각 출연자에게 따로 전달했다. 그동안 대본은 ‘리턴’의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지만, 사태 후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변경했다.

제작진은 촬영을 다시 시작했지만, 원활하게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깊다. 고현정의 캐릭터를 버리기보다 그대로 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박진희에게 맡기고 싶지만, 당사자가 11일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드라마 촬영이 워낙 바빴던 일정 속에서 진행되기에 돌체 아이를 임신 중인 박진희로서는 부담감이 클 수도 있다. 더욱이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고현정의 복귀를 바라는 동시에 박진희의 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진희가 출연을 고사하면 제작진으로서의 다시 새로운 배우를 모색해야 한다.

‘리턴’ 측 관계자는 11일 “어수선한 상태에서 촬영을 재개했지만 빨리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14·15일 결방하고, 21일 다시 방영될 예정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말부터 하루도 못 쉰 ‘방탄’…“명절편 집에 갈래요”

빡빡한 일정…당분간 휴식 후 11월 4일엔 일본 앨범 발매·팬미팅 계획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 상반기 돌아온다. 지난해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하’로 국내 외에서 각종 기록을 써내려가며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방탄소년단이 또 한번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발표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4월 일본에서 발표하는 새 앨범과 대규모 팬미팅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가수들은 새해 연중계획을 세우면서 대략적인 앨범 발매 시기를 정해둔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활약을 보이는 스타라는 점에서 분기별 활동은 물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다.

이미 가요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일정이 내년까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상반기에 새 앨범을 발표할 것으로



‘황제의 귀환’ 방탄소년단이 상반기 새 앨범을 발표한다. 4월 일본 앨범과 팬미팅을 진행하고 국내 팬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뉴스1

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멤버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틈틈이 음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부터 지난날까지 각종 가요 시상식에 참석하며 하루도 쉬지 못한 티라 설 연휴까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갖는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4월4일 일본에서 발표하는 새 번째 정규앨범 ‘페이스 유어셀프’ 후반기 작업과 팬미팅을 준비한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

서 발표하는 새 앨범은 2016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히트곡 ‘피 땀 눈물’ ‘봄날’ 등의 일본어 버전에 신곡 2곡을 추가한다.

4월18일부터 요코하마아레나와 오사카성 홀에서 열리는 7만2000석의 팬미팅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첫 번째 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만큼 이번 팬미팅도 대규모로 진행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조선명탐정3 vs 블랙 팬서…“설 연휴 한 판 붙자!”

조선명탐정3, 나흘만에 100만 돌파
블랙 팬서는 예매율 40% 기대 증폭

한국과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시리즈 영화가 진검승부를 펼친다. 현재 상영 중인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조선명탐정3)과 ‘블랙 팬서’가 설 연휴 관객몰이에 나선다. 기선은 한 주 앞서 개봉한 ‘조선명탐정3’가 잡았지만 ‘블랙 팬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8일 선보인 ‘조선명탐정3’는 11일까지 전국 1200개 스크린에서 누적 관객 100만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육박하는 관

객을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말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이다. 2011년 ‘각시투구꽃의 비밀’로 시작한 2014년 ‘사라진 놈의 딸’로 이어진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명성과 재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덕분에 4편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주연인 김명민·오달수 콤비와 연출자 김석윤 감독, 제작사 청년필름이 손잡고 쏠리지 않은 시간 꾸준히 제작해온 시리즈의 지속적인 개봉을 원하는 관객의 요구는 물론 3편의 흥행세에 따른 4편 제작의 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맞서는 ‘블랙 팬서’는 설 연휴 직전인

윤여진 전문가 기자 tadada@donga.com